

♣국제환경운동 사례연구-환경정의운동의 사례 (미국)

오늘날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공해나 오염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환경정의란 환경 문제가 이러한 1차적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결부되어 인간적인 삶의 조건들을 제약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다. 환경 정의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미국에서 소수 인종과 빈곤한 지역 사회가 환경 오염에 과도히 노출되어 있거나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민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Bryant, 1998) 환경정의 운동을 사례 연구로 삼게 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최초로 시민 환경운동을 통해서 제기되었으며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환경 운동의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1987년 미국 기독교연합 인종정의위원회(United Church of Christ Commission for Racial Justice)에서 발간한 보고서"Toxic Wastes and Race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Report on the Racial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with Hazardous Waste Sites, N.Y: United Church of Christ" 에서 환경인종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소수 인종과 빈민층이 폐기물처리장에 불공평하게 많이 입지하고 있음을 밝혀냈는데 이러한 틀 아래에서 환경 운동은 환경정의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사회문제만으로 여기던 유색 인종과 하층민들의 생활 환경문제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환경정의운동은 유해폐기물처리장 입지에 대해 투항하는 유색인종의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1982년 10월 , North Carolina의 Warren County에서 6,000 트럭분의 유해화학폐기물(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이 실린 옹을 불법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려는 주의 조치에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저항과정에는 시민집단(citizen group)이 중심이 되었으며, 저항자들은 흑백,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원되었다. 또한 시위과정에서 500명 이상이 체포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예정 지역인 Afton town은 주에서 가장 가난한 농촌으로 대부분(65%) 흑인(African-American)으로 구성된 County(North Carolina 주 평균의 3배 이상)이었다. 사실 이 지역에는 대형 위험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이에 Ken Ferruccio가 지도자가 되어 유해폐기물반대시민단체(Warren County Citizens Concerned About PCBs)를 조직하였다.

이 지역이 유해폐기물 매립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즉 환경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정치적인 힘이 없는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폐기물 매립장 입지의 정치적 결정에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폐기물생산자는 위험폐기물의 책임을 폐기물 매립장 운영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장 운영자에게 5년 이후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연방법이 있다. Warren County의 경우에도 Afton으로 폐기물의 입지가 결정될 때의 경제적, 산업적 요인이 있었다. Afton은 Soul City(North Carolina에 있는 산업단지)와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 산업폐수처리공장과 3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Afton의 입지는 Soul City(생산), 처리공장(폐기물 처리)과 폐기물 매립장(저장)을 구성하는 산업패키지로 이용될 예정이었다. 더 나아가 폐기물 처리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여러 지역에서 들여와 처리하는 것까지를 계획하고 있었다.

주민저항과정에는 여러 단체 및 지도자들이 참여했는데 교회연합, 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 흑인대표자회의, 흑인대표자회의 등이 그 대표적 단체들이다. 이 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폐기물 매립장 반대운동과 데모가 위에서 언급한 87년의 보고서에서 환경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로 명명된 것이다. 한편 행정 당국의 행동은 제도적 인종주의의 연장으로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유해폐기물 반대운동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중단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 운동으로 인해 더 이상의 폐기물 매립장은 건설되지 않았으며, 주 폐기물 매립장을 이전시키거나 유독성을 없애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폐기물 매립장반대운동은 현대 환경정의운동의 원형(Prototype)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 운동 이후 오염시설의 입지에 지역시민권과 사회정의 집단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환경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관련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직시하게 되었다. 하나의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임시적 조직들이 환경정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방정치에서 지속적인 항구조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여러 전국적 시민 집단이 데모에 관여함으로써 지역적 이슈의 전국화가 가능하였다. 또한 흑인들이 환경인종주의에 저항해 전국적이고 광범위하게 집단을 동원한 저항운동, 시민권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Warren County사건 이후에 일어난 미국의 주요환경정의운동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Houston-휴스턴은 오랜 동안 무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흑인으로 구성된 교외지역이 도시쓰레기매립지로 선정되었다.그래서 이 매립지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NECAG(Northeast Community Action Group)가 만들어졌다.
- 2) Dallas-인구의 85%가 흑인인 지역인 서부달라스에는 납제련소가 있었다. 여기에서 납오염반대주민연대가 조직되었고, 이후 서부달라스 환경정의연대(West Dallas Coalition Environmental Justice)가 운동을 이어나갔다.
- 3) Los Angeles-인구의 63%가 유색인종이며, 이 중 52%흑인이고,44%가 Latino인 지역에 도시의 고형폐기물소각로 입지가 예정되었다. 1983년 이러한 LA시 당국의 결정

에 반대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조직되었고, 1984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와 환경보호청에 반대하기 위해 MELA(Mothers of East Los Angeles)가 만들어졌다.

- 4) Richmond(CA)-이 곳은 인구의 반 이상이 흑인이고, 10%가 Latino이다. 5대 오염산업이 있어 유독성 방출문제가 심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성반대연합(West County Toxic Coalition)을 조직하였다.
- 5) Kettleman City(CA)-95%이상의 주민이 Latino인 곳으로 세계최대의 폐기물처리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새로운 소각로 건설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깨끗한 공기와 물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People for Clean Air and Water)을 설립했다.
- 6) Rosebud Reservation(SD)-원주민보전지역이 주의 환경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폐기물처리기업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South Dakota에서 나타났는데 매립지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도로연대(Good Road Coalition)가 조직되었다.

환경인종주의는 기본적으로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의 불공평한 분배이며, 유색인종이 사는 공동체에 독극물과 오염물질이 생명을 위협하는 공식적 제재(sanctioning)라는 점에서 인종차별이다. 이는 유색인종을 주요 환경단체, 의사결정위원회, 규제집단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환경정의운동은 환경 운동과 함께 동적인 사회운동,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운동은 주로 풀뿌리단체(grassroots group)운동으로부터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환경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개개인, 소규모의 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에서 나온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